

베테랑-젊은 선수 융합... K리그 3위 금자탑

광주FC 2023시즌 결산

④ 고참·신에 친구 조화

안영규·이도민, 후배들과 소통
94년생 이순민 허리 역할 담당
내년 시즌, 선수단 관리 중요성 ↑



광주FC가 젊은 피들의 맹활약에 힘입어 올 시즌 K리그1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젊은피 뒤에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베테랑들의 헌신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신·구 선수들의 유기적 조합 덕분에 창단 첫 아시아 무대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다.

중앙 수비수 안영규는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도 주장을 맡으며 선수단을 이끌었다. 지난해 광주 K리그2 우승과 함께 MVP를 수상했던 그를 두고 현장에서는 정신적 지주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호고 출신의 허율은 “라떼는 말이야 라는 얘기도 하면서 선수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다”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상호작용도 잘 되고 다가가기도 편하게 했다. 경기장에서는 똑똑하게 축구를 하기

때문에 보고 배우는 게 많았다”고 말했다.

축구경기에서 베테랑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단순히 나이만이 아니라 실력과 인성을 갖춘 리더의 존재감은 팀의 중심이 된다. 성장이 필요한 젊은 선수들에겐 더욱 더 의미가 크다.

광주 선수들은 평균 연령이 젊은축에 속한다. ‘광탄소년단’으로 불리는 엄지성과 허율, 정호연, 이희균 등이 주축으로 자리 잡았고 등록 선수 명단에 80년대생은 안영규와 이도민 뿐이다.

안영규는 사실상 홀로 최고참 역할을 했다. 1989년생 동갑내기로 함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이도민이 시즌 직전 쇄골 골절로 이탈하면서 전반기를 날렸고, 안영규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상황이었다.

안영규는 경기력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 올 시즌 32경기에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장하며 주장 완장을 찼고 35실점으로 최소 실점 공동 1위를 견인했다. 무실점 경기는 16회로 단독 1위였다. 14라운드 인천전(1-1 무)에서 전제골



광주FC 이순민(왼쪽)이 지난 11월11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36라운드 원정 경기가 1-1로 종료된 뒤 골키퍼 이준을 달래주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을 터트렸고 15라운드 수원FC전(2-0 승)에서 티모의 선제골 겸 결승골을 도우며 해결사 역할을 했다. 16라운드 포항전(4-2 승)에서 켄지골을 터트렸고 28라운드 수원삼성전(4-0 승)에서 이희균의 선

제골 겸 결승골을 도왔다. 2득점 2도움으로 팀의 승점 획득에도 기여했다.

이도민은 경기장 밖에서 안영규에게 힘을 실어줬다. 부상 복귀 후 올 시즌 2경기 출장에 그쳤지만 훈련장에서 만큼은 정신

적 지주로 책임을 다했다.

안영규와 이도민은 시즌 중 “경기장에서는 선후배가 없다. 전쟁터라고 생각하고 싸워야 한다며 용기를 불어넣어 줬다”며 “고참으로서 어린 선수들을 잘 밀어주고 끌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잘 다독이고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부주장 이순민은 최고참 안영규와 이도민을 뒷받침 했다. 1994년생인 이순민은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도 부주장을 맡았다. 안영규가 수비 진영의 중심 역할을 했다면 이순민은 중원에서 중심을 잡았다.

고참과 신예의 허리 역할도 묵묵히 수행했다.

팀 내 최고참 안영규와 가장 어린 정지훈은 15살 차이인데 이들 가운데서 허리 역할을 했다. 엄지성과 허율, 정호연 등 MZ 세대들이 팀에 완벽히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왔다.

새 시즌에는 베테랑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K리그와 FA컵에만 집중했던 기존 시스템에서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가 추가되기 때문에 선수단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이정호 감독의 주장단 선택 역시 주목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 보치아 강선희, 파리패럴림픽 국가쿼터 획득

홍콩 월드 亞-오세아니아 선수권 BC3 혼성페어서 정호원과 金

보치아 국가대표 강선희(광주장애인보치아연맹·사진)가 2024 파리 패럴림픽 국가쿼터를 획득했다.

강선희는 지난 3~12일 홍콩에서 열린 ‘2023 홍콩 월드 보치아 아시아-오세아니아 선수권대회’에 출전해 BC3 혼성 페어(2인) 금메달과 BC3 여자 개인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강선희는 BC3 혼성 페어(2인)에서 정호원(강원장애인체육회)과 금메달을 합작하며 내년 파리 패럴림픽 국가쿼터를 확보했다.

세계랭킹 6위 강선희-정호원은 결승에서 세계 3위 호주와 접전 끝에 4엔드 합계 5-4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강선희는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게임에 이어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BC3 혼성페어 우승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국제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내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태극마크를 달 수 있도록 하고 파리에 꼭 입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 황정현 국가대표 수석코치(광주장애인체육회 보치아 전문체육지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가대표를 결정하는 국내대회 랭킹포인트에서 강선희가 가장 높아 파리 패럴림픽 출전이 유력하다”며 “광주시의 안정적인 훈련장소 제공과 함께 체계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강선희가 파리패럴림픽에서 시상대 최상단에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은 내년 6월 파리패럴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및 국내대회 랭킹포인트를 종합해 최종 참가 선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전남도체육회,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 우수기관상

2년 연속 수상

전남도체육회가 2023년도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 공모 사업 성과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8일 경기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2023 제2회 스포츠안전전의 밤 행사에서 2023년도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 공모사업 부문 우수기관상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우수기관상 수상이다.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은 스포츠안전재단이 스포츠 안전을 기반으로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안전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4월 공모에 선정돼 대한체육회로부터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요트 체험 및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선정해 회차별 40명씩, 총 4회에 걸쳐 1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 7월 1회차 장흥안양초·화순도곡중앙초(40명)를 시작으로 영암신북중(30명)·나주한아름초(7명), 목포부설초·나주다도초·순천낙안초(40여명), 보성조성남초·장흥초·별교낙성초(40여명) 등 농촌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해양체험의 최대 위험요소인 안전사고 방지에 집중해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무사고 사업을 진행한 게 호평을 받았다.

최동환 기자



안세영이 지난 11일 중국 항저우 드래곤호텔에서 열린 2023 BWF 월드투어 갈라디너에서 ‘올해의 여자 선수상’을 수상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계배드민턴연맹 제공

‘셔틀콕 여제’ 안세영, 배드민턴 올해의 여자선수상

中 BWF 월드투어 갈라디너 서승재 남자 선수상 수상

광주체고 출신 ‘셔틀콕 여제’ 안세영(21·삼성생명)이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선정한 ‘올해의 여자 선수’ 영예를 안았다. 올해 남자복식과 혼합복식 세계챔피언에 등극한 서승재(26·삼성생명)는 ‘올해의 남자 선수’로 뽑혀 한국 선수가 남녀 올해의 선수를 동시 수상했다.

안세영은 지난 11일 중국 항저우 드래곤호텔에서 열린 BWF 월드투어 파이널 갈라디너에서 중국의 천위페이(25)와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26) 등 경쟁자를 제치고 ‘올해의 여자선수상’을 받았다.

안세영은 평가기간인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11개의 타이틀을 거머쥐며 거침없는 활약을 펼쳤다.

특히 지난 3월 전영오픈에서는 1996년 방수현 이후 27년 만의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고, 8월 BWF 세계랭킹에서 한국 선수로는 1996년 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여자단식 세계 1위에 등극했다. 또 8월 2023 코펜하겐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금메달과 9~10월 2022 항저우아시아게임 2관왕(여자단식·여자단체)을 차지하는 등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안세영은 수상 직후 “정말 행복한 날이다. 피곤한 한 해였지만 올해를 위한 완벽한 결말이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며 “저는 아직 어리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승재는 ‘올해의 남자 선수상’을 받았다. 서승재는 남자단식 세계 1위 빅토르 악셀센(덴마크)과 6위 쿤라부트 비티드 사른(태국)을 제치고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서승재는 올해 코펜하겐 세계배드민턴 선수권에서 강민혁(24·삼성생명)과 남자

복식, 채유정(28·인천국제공항)과 혼합복식에서 호흡을 맞추며 각각 금메달을 따내 2관왕에 올랐다. 세계선수권에서 복식 2관왕이 탄생한 것은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서승재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닌 파트너들의 공헌 덕분이다”며 “이전에는 준결승이나 결승 이전에 패배할 정도로 큰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제 결을 지켜준 팬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WF 올해의 여자선수와 올해의 남자 선수에 한국 선수가 동시에 오른 것은 한국 배드민턴 역사상 처음이다.

올해 혼합복식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 서승재-채유정은 ‘올해의 복식조’ 후보에 올랐으나 세계선수권과 아시아게임 금메달을 포함해 7개의 타이틀을 차지한 여자복식 세계 1위 중국의 천칭첸-지아이판에게 밀렸다.

최동환 기자